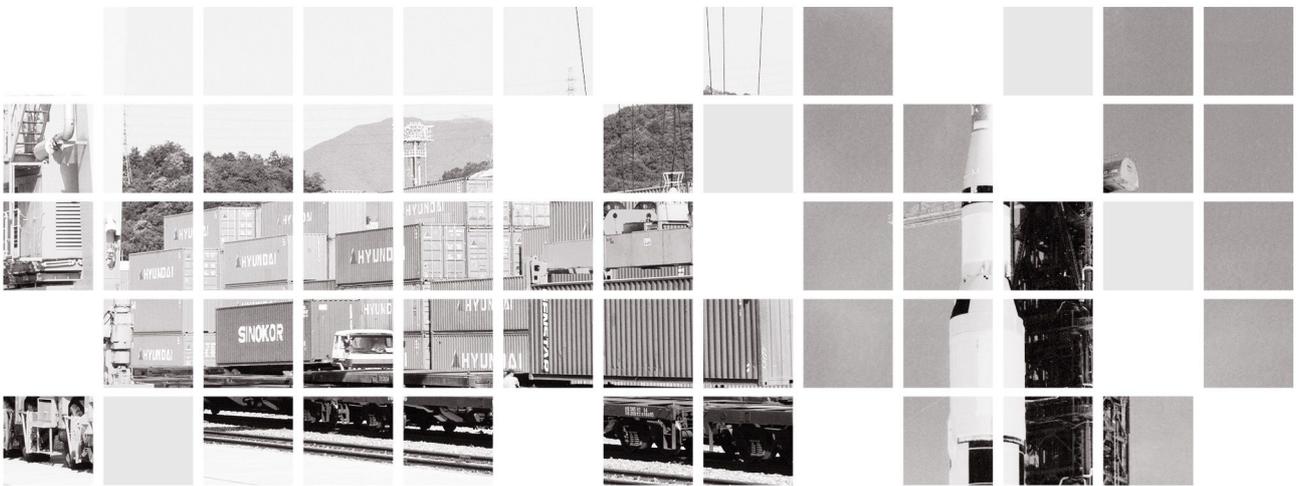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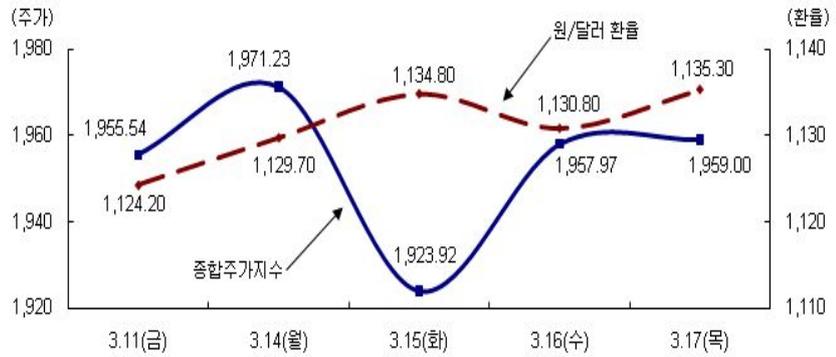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청년 취업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청년 일자리의 쏠림현상 더욱 심화]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1~3.1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청년 취업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청년 일자리의 쏠림현상 더욱 심화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민 정 연구 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조 호 정 선임 연구 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청년 취업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청년 일자리의 쏠림현상 더욱 심화

■ 청년 취업의 현황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 3%대 보다 2배 이상 높은 7~8%대를 기록하면서 청년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20~29세 청년층의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폭은 더욱 큰 상황이다. 반면, 비청년(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을 제외) 신규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년 취업자의 구조적 특징 분석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고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청년 취업자의 구조적 특징

첫째, (성별) 청년 취업자 중 남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취업난이 심화되었다. 2010년 경제회복기에도 남성의 취업자 감소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청년 남성의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더 심각하다. 둘째, (학력별) 청년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심화된 가운데, 특히 고졸 청년의 취업이 악화되었다. 대학진학을 상승으로 청년 취업자 중 초대졸 이상의 비중은 2004년 46.1%에서 2010년 55%로 증가한 반면, 고졸 취업자는 동기간 7.9%p 감소하였다. 셋째, (산업별) 제조업 등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신규 일자리가 주로 증가한 서비스 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 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청년 취업자의 수와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넷째, (직업별) 청년 취업자의 전문 사무직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청년 취업자는 전문 관련 종사자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높지만 기능·장치기계 조립 직종의 비중은 낮아지고 2004년 대비로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비청년 취업자는 거의 모든 직종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섯째, (기업규모별)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 선호는 비 청년층보다 높다. 청년층 취업자 중 1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은 20%로 비 청년층의 14.2% 보다 5.8%p 높아 청년층은 더 큰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청년 일자리는 1~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3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위별)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일자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의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는 모두 크게 감소했는데, 임금근로자 중에서 일용과 임시직의 일자리와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자영업 구조조정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과 과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학력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산업, 직종, 직위에의 쏠림 심화가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악화시켰고, 이는 향후 일자리의 미스매칭 현상과 숙련·기능직 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년층을 위한 직장 체험 및 직업 훈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청년 일자리의 스펙트럼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과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 청년 취업의 현황

○ 청년 신규 취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실업률은 높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 49.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0년 43.8%로 5.4%p 떨어졌고,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청년층 인구는 동기간 30만 명 이상이 증가
 -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동기간 45.1%에서 40.3%로 4.8%p 하락하였는데 동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1.1%p 하락에 그침
 - 청년 실업률도 2004년 이후 7~8%대로 전체 실업률 3%대 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히,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청년 중에서도 20~29세 연령의 취업자 감소폭이 더 큼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09년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으나, 2010년에는 전년대비 32.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남
 - 그러나, 15~29세 청년 신규 일자리는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비청년(전체 취업자 중 15~29세의 청년층을 제외) 신규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연령별로는 특히 5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
 -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0.3%에서 2010년 16.4%로 3.9%p 감소¹⁾

< 연도별 신규취업자 증감 추이 >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
전 체	418	299	295	282	145	-72	323	469
청 년취업자	-28	-129	-180	-68	-119	-127	-43	-37
20~29세	-14	-114	-146	-69	-98	-115	-69	-72
비 청년취업자	446	428	475	350	264	55	366	506
50대 이상	276	388	358	373	225	252	341	455

자료 : 통계청.

주 : 1) 청년층은 15-29세, 비청년층은 전체 취업자수 중 청년층을 제외.

2) 2011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1) 총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22.5%에서 2010년 20.6%로 1.9%p 하락하였는데, 청년취업자가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폭이 더 커서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년 취업자의 구조적 특징

○ (성별) 청년 남성 취업자의 수와 비중이 여성보다 크게 감소

- 청년 취업자 중 남성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경제회복기에도 남성 취업자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여 남성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
-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2004년 20.3%에서 계속 떨어져 2010년 16.4%로 하락하면서 청년 취업자가 크게 감소
- 특히, 청년 취업자 중 남성 취업자의 비중은 2004년 48.1%에서 2010년 47.1%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여성은 동기간 51.9%에서 52.9%로 1%p 상승하여 남성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됨²⁾
- 반면, 비청년 취업자는 남성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의 비중도 여성 보다 20%p 이상 높음
- 비청년 취업자 중 남성 취업자 수는 동기간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비중도 2010년 60.6%로 여성의 39.4% 대비 21.2%p 높음

< 청년/비청년 취업자 수와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남자	2,203	2,108	2,023	1,993	1,926	1,873	1,845
(비중)	(48.1)	(47.4)	(47.4)	(47.4)	(47.2)	(47.3)	(47.1)
여자	2,375	2,341	2,247	2,209	2,158	2,084	2,069
(비중)	(51.9)	(52.6)	(52.6)	(52.6)	(52.8)	(52.7)	(52.9)
청년층 취업자	4,578	4,450	4,270	4,202	4,084	3,957	3,914
(비중)	(20.3)	(19.5)	(18.4)	(17.9)	(17.3)	(16.8)	(16.4)
남자	10,991	11,222	11,421	11,613	11,777	11,861	12,070
(비중)	(61.1)	(61.0)	(60.5)	(60.4)	(60.4)	(60.7)	(60.6)
여자	6,988	7,185	7,460	7,617	7,717	7,688	7,845
(비중)	(38.9)	(39.0)	(39.5)	(39.6)	(39.6)	(39.3)	(39.4)
비청년층	17,979	18,407	18,881	19,230	19,493	19,549	19,915
(비중)	(79.7)	(80.5)	(81.6)	(82.1)	(82.7)	(83.2)	(83.6)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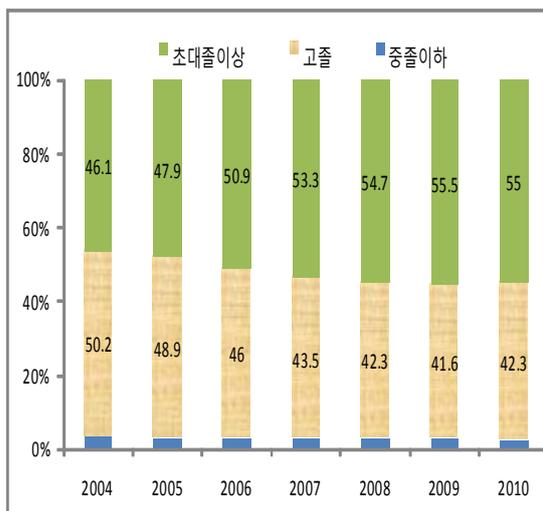
주 : 청년층과 비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2004년 기준 청년남성/전체청년 비중(주민등록 기준)은 51.6%, 청년여성/전체청년 비중은 48.4%이었으나 2010년 청년남성/전체청년 비중은 52.3%, 청년여성/전체청년 비중은 47.7%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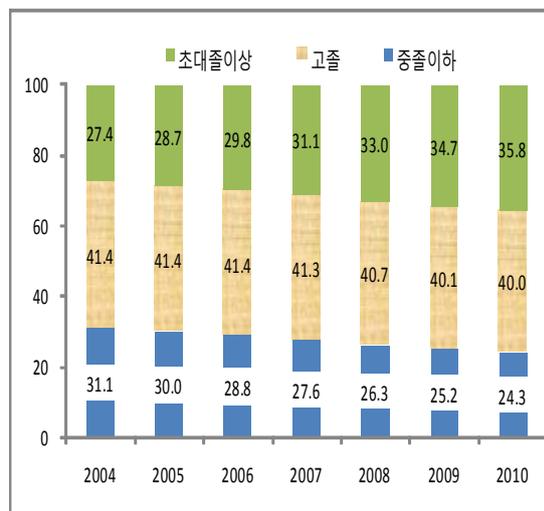
○ (학력별) 청년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심화되었는데 특히, 고졸 청년의 취업이 악화

- 청년 취업자 중 초대졸이상 비중은 증가하였고 고졸이하 비중은 크게 낮아져 청년 취업자의 고학력화와 청년 고졸자의 취업난이 심화
 - 대학진학률³⁾ 상승으로 고학력화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청년 취업자 중 초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6.1%에서 2010년 55.0%로 증가하며 전체 청년 취업자의 50%를 크게 넘어섬
 - 반면, 청년 취업자 중 고졸과 중졸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대비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고졸 학력 취업자⁴⁾의 비중이 7.9%p 감소함
- 비청년 취업자의 초대졸 이상 비중도 크게 높아졌으나,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취업자 비중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비청년 취업자 중 초대졸 이상의 비중도 2004년 27.4%에서 2010년 35.8%로 청년층과 비슷한 비중으로 증가
 - 그러나, 고졸 취업자의 비중이 2010년 40%로 2004년의 41.4% 대비 1.4%p 감소에 그쳤고, 중졸 이하의 취업자 비중도 20%대 중반으로 높은 편임

<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비중 >



< 비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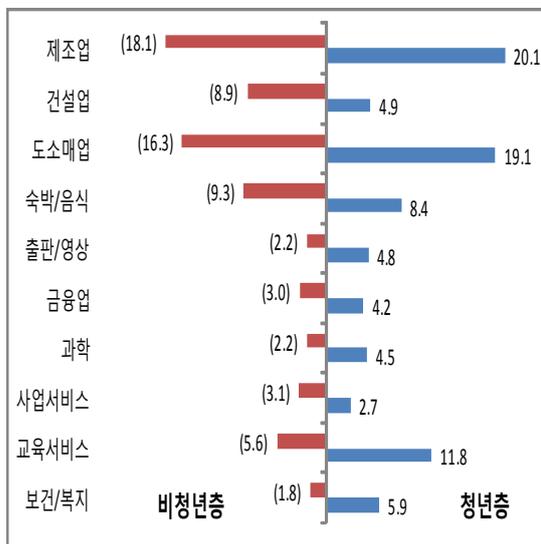
3) 2010년 발표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중등교육 이수자 중 대학 진학자 비율)은 2004년 49%, 2005년 51%, 2006년 59%, 2007년 61%로 지속적으로 증가.

4) OECD의 국가별 직업교육(고등교육과정) 시스템 비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과정(ISCED3)의 직업 교육은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OECD, 'Learning for Job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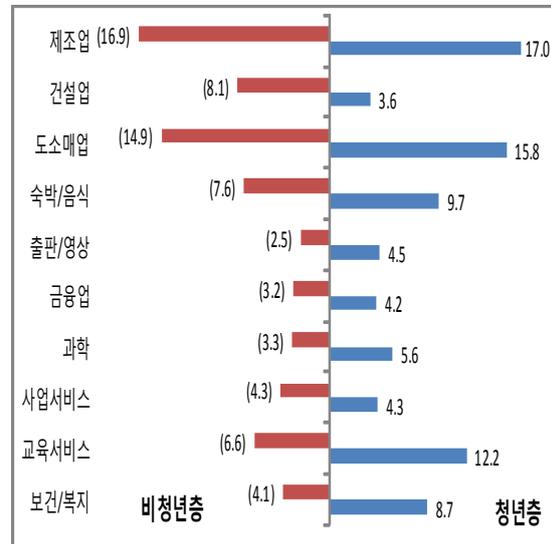
○ (산업별) 제조업 등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크게 감소

- 신규 일자리가 주로 증가한 서비스산업⁵⁾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건설업 및 도소매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크게 낮아짐⁶⁾
 - 청년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4년 20.1%에서 2010년 17.0%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2004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
 -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각각 0.4%p, 2.8%p, 사업서비스업도 1.6%p 증가
- 비청년 취업자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크고, 주요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도 청년층과 유사하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비청년 취업자의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산업별 취업자 >



< 2010년 산업별 취업자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 위의 표에서는 상위 10개 산업만을 정리함.

2) 괄호안의 수치는 비 청년층 취업자의 각 산업별 비중을 나타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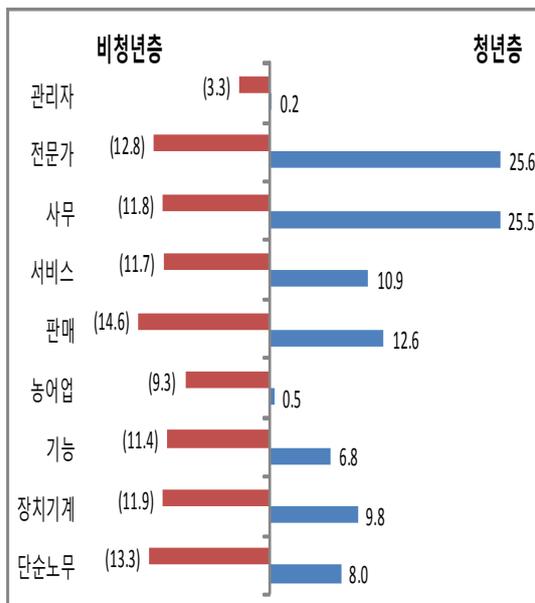
5)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산업별 전체 신규 일자리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보건 서비스, 사업서비스, 과학·전문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일자리가 증가

6) p.1의 취업자 증감표와 p.12 별첨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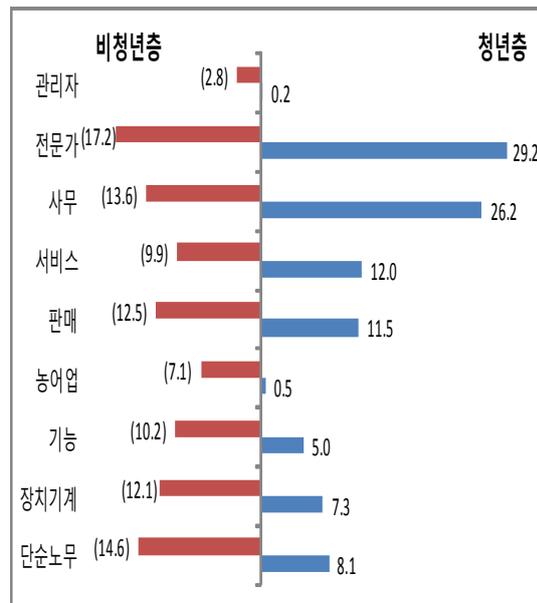
○ (직업별) 청년 취업자의 전문관련 및 사무직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

- 청년 취업자의 전문·사무 종사자 비중은 50%대 이상으로 비청년 취업자의 30%대에 비해 20%p 이상 높아 일부 직업군에 대한 쏠림이 심화
 - 청년 취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전문관련,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순이며, 기능직과 장치기계 및 농어업 종사자 비중은 낮음
 -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전문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2004년 51.1%에서 2010년 55.4%로 증가. 특히, 전문관련 종사자는 2010년 29.2%로 2004년 25.6%대비 3.6%p 증가하였음
 - 반면,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1.1%p, 0.9%p 감소하였고 기능직과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 비중도 각각 1.8%p, 2.5%p 크게 낮아짐
- 반면 비청년 취업자는 거의 모든 직종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2004년 대비로 크게 감소
 - 비 청년취업자 중 전문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2010년 17.2%로 2004년의 12.8% 대비 4.4%p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는 동기간 총 3.9%p 감소함

<2004년 직업별 취업자>



<2010년 직업별 취업자>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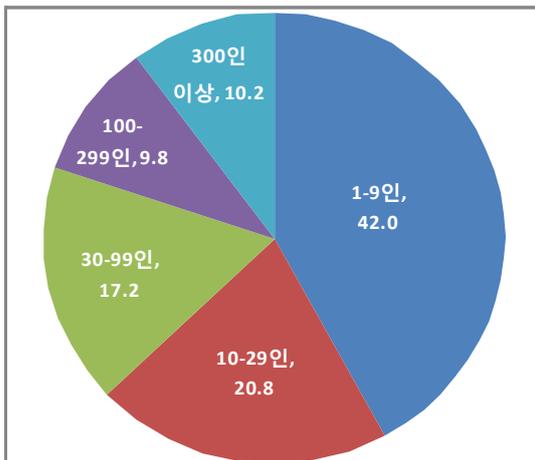
주 : 1) 직업 6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2) 괄호안의 수치는 비 청년취업자 중 각 직업에의 종사 비중을 나타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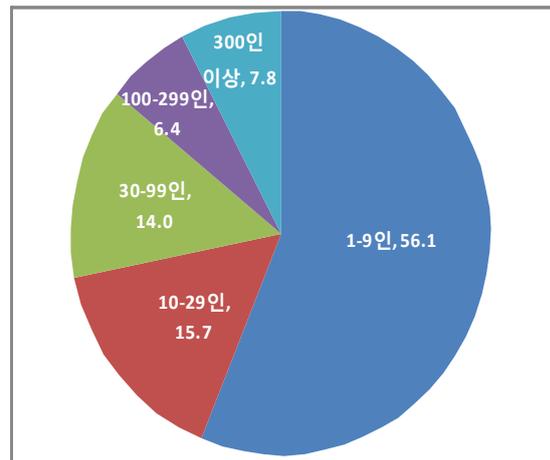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청년 취업자의 대규모 기업 선호는 비청년 취업자보다 높음

- 청년취업자의 100인 이상 기업 규모의 비중은 20%로 비청년 취업자의 14.2% 보다 5.8%p 높음
- 청년 취업자 중 80%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은 20%로 낮게 나타남
- 비 청년취업자도 약 86%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은 7.8%로 조사됨. 특히 이들은 1~9인 이하의 취업자 비중이 56.1%로 청년 취업자에 비해 14.1%p 높음
- 한편, 청년 일자리는 2004년 이후 모든 기업규모에서 감소함. 특히 1~9인 사업장의 취업자 감소가 크고 300인 이상 기업도 2009년 이후 감소가 지속됨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비중>



<비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비중>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0년 기준 자료임.

○ (종사자 지위별)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일자리 조차도 감소

- 상용직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지위별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
-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 등으로 청년 취업자의 임금, 비임금 근로자가 모두 크게 감소
- 청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010년 363만명으로 2004년의 417만명 대비 54만명 감소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도 40.8만명에서 28.4만명으로 12.4만명 감소. 특히, 동기간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은 30%에 달함

7) p.15. 별첨 6 참조.

- 임금근로자 중에는 상용근로자⁸⁾의 수는 적게 줄어든 반면, 일용과 임시직 근로자는 크게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에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 그러나, 청년 상용근로자 중에서도 고용계약을 정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5.1%에서 2010년 17.5%로 증가하고 있어 고용 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청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상황은 악화됨
- 비청년 취업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004년 대비 68.1만명 줄어들

<청년/비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별 증감>

(단위: 천명, %)

	청년취업자				비 청년취업자				
	2004(A)	2010(B)	B-A	증가율	2004(C)	2010(D)	D-C	증가율	
합 계	4,578	3,914	-664	-14.5	17,979	19,915	1,936	10.8	
임금근로자	4,170	3,630	-540	-13.0	10,724	13,341	2,617	24.4	
	상용직	2,115	2,107	-8	-0.4	5,510	7,979	2,469	44.8
	임시직	1,632	1,207	-425	-26.1	3,450	3,861	411	11.9
	일용직	422	316	-107	-25.2	1,766	1,501	-264	-15.0
비 임금근로자	408	284	-124	-30.4	7,255	6,574	-681	-9.4	
	고용주	43	36	-7	-17.2	1,636	1,463	-173	-10.5
	자영자	229	162	-67	-29.4	4,202	3,931	-271	-6.4
	무급가족	136	87	-49	-36.3	1,417	1,179	-238	-16.8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10년의 증감비율임.

< 청년층 상용직의 고용 계약 여부 >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했음	319 (15.1)	357 (16.9)	341 (16.4)	385 (17.8)	345 (16.1)	371 (17.9)	368 (17.5)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만 해당함.

8)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임금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근로자로 구분.

3.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학력화 등 구조적 문제와 일부 산업과 직종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가 청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향후 일자리 미스매칭과 숙련·기능직 인력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청년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됨
 - 청년 취업자의 구조적 문제
 - 청년 취업자 중 남성의 취업난이 여성보다 심각한데 이는 남성들의 취업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첫 직장 선택 시 여성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
 - 고학력화 심화로 학력 인플레이가 가중되어 고학력자가 저학력자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는 저학력자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짐
 - 특히, 청년 고졸자의 고용이 크게 악화됨
 - 일부 산업과 직종에 대한 편중 심화는 향후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과 숙련·기능직 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청년 취업자의 전문관련, 사무 종사자 등 일부 직종과 보다 큰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선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취약 일자리로 구분될 수 있는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비중은 확대됨
 - 상용직 비중의 확대는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청년층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
- (과제)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1) 청년 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 2)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

- 청년층에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마이스터고 및 대학 재학생들이 중소기업 인턴쉽과 중소기업 현장 훈련에 관심을 갖도록 장학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
 - 한편, 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현장교육을 도와주는 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하여 직업 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
 - 산학 협동프로그램 강화 등의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청년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

- 다양한 직종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 청년층의 일부 산업과 직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 등도 요구됨

- 또한,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
 - 장기적 시각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특히, 중등교육 이상의 고등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직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독일의 경우 이를 통해 청년층 실업률을 크게 낮춤
 - 한편, 대학생 창업 활성화⁹⁾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의 제고할 수 있는 ‘녹색벤처 활성화¹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음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9) 빌게이츠(MS)와 스티브잡스(Apple)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래리와 세르게이(Google)는 대학 원생 시절에 학교 컴퓨터를 활용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으며 검색서비스를 시작함.

10) 친환경,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산업과 관련된 창업 또는 벤처를 녹색창업 또는 GT벤처라 부르며, 세계 각국이 그린뉴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대체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에 발맞춰 ‘GT벤처’ 활성화에 집중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신성장산업도 육성 가능함.

< 별첨 1. 청년층 취업자 산업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어업, 및 광업	38,406 (0.8) 8.2	32,264 (0.7) 8.0	30,824 (0.7) 7.8	27,394 (0.7) 7.4	24,132 (0.6) 7.2	25,927 (0.7) 7.1	31,964 (0.8) 6.7
제조업	921,163 (20.1) 18.5	892,164 (20.1) 18.1	803,102 (18.8) 17.5	758,536 (18.1) 17.1	684,511 (16.8) 16.8	634,041 (16.0) 16.3	664,753 (17.0)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열 수도 사업	11,216 (0.2) 0.3	10,892 (0.2) 0.3	11,412 (0.3) 0.3	10,101 (0.2) 0.4	9,764 (0.2) 0.4	13,459 (0.3) 0.4	8,285 (0.2) 0.3
하수·폐수 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043 (0.2) 0.2	8,192 (0.2) 0.2	10,031 (0.2) 0.3	8,068 (0.2) 0.3	8,437 (0.2) 0.3	10,695 (0.3) 0.3	7,591 (0.2) 0.3
건설업	224,637 (4.9) 8.1	218,487 (4.9) 7.9	206,156 (4.8) 7.9	174,696 (4.2) 7.9	174,799 (4.3) 7.7	156,975 (4.0) 7.3	141,852 (3.6) 7.4
도매 및 소매업	872,818 (19.1) 16.9	816,225 (18.3) 16.4	746,704 (17.5) 16.0	730,253 (17.4) 15.7	689,799 (16.9) 15.4	643,040 (16.3) 15.3	617,585 (15.8) 15.0
운수업	103,083 (2.3) 5.0	113,877 (2.6) 5.1	120,379 (2.8) 5.2	88,008 (2.1) 5.3	102,046 (2.5) 5.3	105,389 (2.7) 5.3	100,508 (2.6) 5.4
숙박 및 음식점업	385,556 (8.4) 9.1	370,945 (8.3) 9.0	338,886 (7.9) 8.9	357,857 (8.5) 8.7	353,107 (8.6) 8.7	354,504 (9.0) 8.2	381,216 (9.7) 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217,948 (4.8) 2.7	212,003 (4.8) 2.8	208,800 (4.9) 2.8	215,364 (5.1) 2.7	203,473 (5.0) 2.7	194,853 (4.9) 2.8	174,789 (4.5) 2.8
금융 및 보험업	191,100 (4.2) 3.3	175,703 (3.9) 3.3	172,290 (4.0) 3.4	169,887 (4.0) 3.4	175,517 (4.3) 3.5	163,780 (4.1) 3.3	165,227 (4.2)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661 (1.0) 2.0	49,770 (1.1) 2.2	38,529 (0.9) 2.2	44,477 (1.1) 2.2	38,131 (0.9) 2.1	35,905 (0.9) 2.1	32,874 (0.8)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7,540 (4.5) 2.7	193,087 (4.3) 2.7	210,131 (4.9) 2.9	242,057 (5.8) 3.0	236,232 (5.8) 3.2	228,335 (5.8) 3.6	218,617 (5.6) 3.7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4,317 (2.7) 3.0	144,720 (3.3) 3.2	148,965 (3.5) 3.5	174,726 (4.2) 4.1	165,678 (4.1) 4.1	160,332 (4.1) 4.0	169,058 (4.3)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1,159 (2.0) 3.4	87,447 (2.0) 3.5	106,870 (2.5) 3.5	107,914 (2.6) 3.4	101,818 (2.5) 3.6	112,456 (2.8) 4.4	88,243 (2.3) 4.0
교육 서비스업	538,259	524,541	540,607	524,051	495,498	504,464	479,358

	(11.8)	(11.8)	(12.7)	(12.5)	(12.1)	(12.8)	(12.2)
	6.8	7.0	7.4	7.4	7.6	7.8	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2,365 (5.9)	277,655 (6.2)	262,414 (6.1)	266,415 (6.3)	301,677 (7.4)	320,881 (8.1)	339,781 (8.7)
	2.6	2.8	2.9	3.2	3.6	4.2	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7,896 (2.6)	133,777 (3.0)	131,506 (3.1)	124,738 (3.0)	142,151 (3.5)	125,227 (3.2)	126,418 (3.2)
	1.5	1.7	1.6	1.6	1.8	1.7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645 (4.4)	181,802 (4.1)	180,273 (4.2)	176,727 (4.2)	176,565 (4.3)	165,756 (4.2)	164,873 (4.2)
	5.0	5.1	5.3	5.5	5.5	5.2	5.1
기타	5,393 (0.1)	6,023 (0.1)	2,101 (0.0)	1,097 (0.0)	584 (0.0)	538 (0.0)	1,080 (0.0)
	0.7	0.7	0.7	0.8	0.7	0.7	0.7
합계	4,578,204	4,449,574	4,269,981	4,202,367	4,083,917	3,956,557	3,914,07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2) 기타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및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3) 괄호안의 수치는 청년층 취업자 중 각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이고 이탤릭체는 전체 취업자 중 각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별첨 2. 청년/비청년 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청년취업자						비청년취업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29	-89	-45	-74	-50	31	-18	16	2	23	-77	161
건설업	-6	-12	-31	0	-18	-15	1	32	47	-37	-74	48
도소매업	-57	-70	-16	-40	-47	-25	1	35	-22	-2	16	5
숙박음식	-15	-32	19	-5	1	27	16	23	-19	0	-109	-74
출판,방송	-6	-3	7	-12	-9	-20	38	16	-24	5	34	36
금융보험	-15	-3	-2	6	-12	1	23	44	22	9	-43	41
전문과학	-14	17	32	-6	-8	-10	33	39	-11	60	96	49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4	26	-9	-5	9	36	73	109	29	-25	70
교육 서비스업	-14	16	-17	-29	9	-25	73	82	55	73	38	-7
보건 서비스업	5	-15	4	35	19	19	44	57	55	67	137	136
합계	-129	-180	-68	-118	-127	-42	428	475	350	262	56	365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2)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 별첨 3. 청년층 취업자 직업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리자	10,472 (0.2)	5,868 (0.1)	5,388 (0.1)	3,392 (0.1)	6,915 (0.2)	10,301 (0.3)	8,083 (0.2)
	2.7	2.6	2.6	2.6	2.3	2.3	2.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70,831 (25.6)	1,135,307 (25.5)	1,169,554 (27.4)	1,198,456 (28.5)	1,198,475 (29.3)	1,171,415 (29.6)	1,143,673 (29.2)
	15.4	15.7	16.6	17.3	18.6	18.8	19.2
사무 종사자	1,168,417 (25.5)	1,179,037 (26.5)	1,141,196 (26.7)	1,133,229 (27.0)	1,100,471 (26.9)	1,031,163 (26.1)	1,024,210 (26.2)
	14.6	14.8	14.6	14.5	14.8	15.3	15.7
서비스 종사자	500,456 (10.9)	491,686 (11.1)	459,616 (10.8)	459,630 (10.9)	478,333 (11.7)	460,088 (11.6)	467,919 (12.0)
	11.5	11.5	11.3	11.0	11.3	10.7	10.2
판매 종사자	579,003 (12.6)	548,307 (12.3)	501,328 (11.7)	492,274 (11.7)	473,517 (11.6)	473,016 (12.0)	449,572 (11.5)
	14.2	13.7	13.5	13.3	12.8	12.7	1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965 (0.5)	23,684 (0.5)	20,521 (0.5)	20,093 (0.5)	15,882 (0.4)	18,328 (0.5)	20,551 (0.5)
	7.5	7.5	7.2	6.9	6.7	6.5	6.0
기능원 및 관련기 종사자	309,357 (6.8)	284,780 (6.4)	270,931 (6.3)	253,883 (6.0)	249,291 (6.1)	215,410 (5.4)	197,507 (5.0)
	10.4	10.3	10.3	10.0	9.9	9.3	9.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49,771 (9.8)	438,375 (9.9)	389,525 (9.1)	323,667 (7.7)	287,930 (7.1)	271,143 (6.9)	287,363 (7.3)
	11.5	11.6	11.4	11.3	11.0	11.0	11.3
단순노무 종사자	364,932 (8.0)	342,528 (7.7)	311,921 (7.3)	317,741 (7.6)	273,104 (6.7)	305,693 (7.7)	315,196 (8.1)
	12.2	12.4	12.6	13.1	12.7	13.4	13.5
합계	4,578,204	4,449,572	4,269,979	4,202,365	4,083,918	3,956,557	3,914,07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직업 6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2) 괄호안의 수치는 청년층 취업자 중 각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이고 이탤릭체는 전체 취업자 중 각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별첨 4.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4,169,784 (91.1)	4,074,009 (91.6)	3,928,349 (92.0)	3,885,286 (92.5)	3,760,207 (92.1)	3,655,586 (92.4)	3,629,795 (92.7)
상용근로자	2,115,192 (46.2)	2,110,710 (47.4)	2,076,185 (48.6)	2,163,643 (51.5)	2,140,871 (52.4)	2,069,473 (52.3)	2,107,039 (53.8)
	33.8	34.6	35.4	36.8	38.2	39.9	42.3
임시근로자	1,632,318 (35.7)	1,530,752 (34.4)	1,463,806 (34.3)	1,334,141 (31.7)	1,252,641 (30.7)	1,250,664 (31.6)	1,206,985 (30.8)

	22.5	22.1	22.2	22.1	21.5	21.7	21.3
일용근로자	422,274 (9.2)	432,547 (9.7)	388,358 (9.1)	387,502 (9.2)	366,695 (9.0)	335,449 (8.5)	315,771 (8.1)
	9.7	9.7	9.5	9.3	9.0	8.4	7.6
비임금근로자	408,419 (8.9)	375,564 (8.4)	341,631 (8.0)	317,080 (7.5)	323,710 (7.9)	300,971 (7.6)	284,279 (7.3)
고용주	43,460 (0.9)	37,258 (0.8)	34,633 (0.8)	36,828 (0.9)	45,602 (1.1)	42,524 (1.1)	35,983 (0.9)
	7.4	7.3	7.0	6.7	6.5	6.5	6.3
자영자	229,097 (5.0)	211,037 (4.7)	195,302 (4.6)	184,732 (4.4)	192,230 (4.7)	169,444 (4.3)	161,768 (4.1)
	19.6	19.7	19.5	19.1	18.8	17.8	17.2
무급가족봉사자	135,862 (3.0)	127,269 (2.9)	111,696 (2.6)	95,520 (2.3)	85,878 (2.1)	89,003 (2.2)	86,528 (2.2)
	6.9	6.6	6.3	6.0	5.9	5.7	5.3
합계	4,578,204	4,449,573	4,269,980	4,202,366	4,083,917	3,956,557	3,914,07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청년층 취업자 중 각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이고 이
 테이블에는 전체 취업자 중 각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 별첨 5. 청년층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추이 >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인	1,981,443 (43.3)	1,945,006 (43.7)	1,842,622 (43.1)	1,796,218 (42.8)	1,745,679 (42.7)	1,658,574 (41.9)	1,643,118 (41.9)
	56.8	56.8	56.8	56.5	56.0	54.2	53.8
10-29인	912,481 (19.9)	868,965 (19.5)	848,610 (19.9)	829,508 (19.7)	809,967 (19.8)	810,758 (20.5)	814,824 (20.8)
	15.3	15.2	15.2	15.6	15.8	16.3	16.5
30-99인	791,679 (17.3)	728,975 (16.4)	718,787 (16.8)	744,288 (17.7)	697,589 (17.1)	671,099 (17.0)	674,164 (17.2)
	13.1	13.1	13.1	13.4	13.6	14.1	14.5
100-299인	422,114 (9.2)	421,974 (9.5)	401,378 (9.4)	397,447 (9.5)	389,715 (9.5)	398,915 (10.1)	383,835 (9.8)
	6.6	6.6	6.7	6.6	6.8	6.9	7.0
300인 이상	470,486 (10.3)	484,653 (10.9)	458,583 (10.7)	434,906 (10.3)	440,967 (10.8)	417,211 (10.5)	398,132 (10.2)
	8.1	8.4	8.2	7.8	7.9	8.4	8.2
합계	4,578,203	4,449,573	4,269,980	4,202,367	4,083,917	3,956,557	3,914,07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청년층 취업자 중 각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이고 이
 테이블에는 전체 취업자 중 각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의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임.

<별첨 6. 청년/비청년 기업규모별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청년취업자						비청년취업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인	-36	-102	-46	-51	-87	-15	169	169	91	-49	-460	78
10-29인	-44	-20	-19	-20	1	4	14	55	124	73	120	95
30-99인	-63	-10	26	-47	-26	3	22	47	109	55	114	155
100-299인	0	-21	-4	-8	9	-15	6	47	13	38	37	26
300인 이상	14	-26	-24	6	-24	-19	87	-24	-55	28	117	-31
합계	-129	-180	-68	-118	-127	-42	299	295	282	145	-72	323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주: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3	0.3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1.1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3월11일	3월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41	3.26	-0.15%p
	엔/달러	92.93	88.43	81.19	82.92	78.68	-4.24¥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798	1.3922	0.0124\$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044	11,775	-269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254	8,963	-129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9	3.66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4.2	1,135.3	11.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55.5	1,959.0	3.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3월11일	3월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100.98	101.45	0.47\$
	Dubai	78.06	73.14	88.80	108.30	106.10	-2.2\$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51.88	348.67	-3.2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